



호랑이 VS 독수리 주말 '한발 대전'



노장 투혼... 휴일 승부 달아오른다



이대진

"노장들에게 승부를 묻는다."
프로야구 2008시즌이 개막 1주일을 맞았다. 지난 1주일 동안 8개 구단은 상대를 두 번 바꿔 가며 전력을 가다듬었다.
시범경기 1위팀 KIA타이거즈는 우승 후보 삼성 라이온즈에게 2연패를 당한 뒤,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2승 1패를 거두며 조금은 아쉬운 한 주를 보냈다.
2연승으로 두 번째 팀과의 경기를 끝낸 KIA는 5연패를 안고 홈으로 돌아온 한화 이글스와 대전 구장에서 주말 대결을 펼친다. 주말 경기에 따라 하위권 두 팀의 상위권 도약 판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이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승부의 중심에는 '노장'들이 서있다. 5일과 6일 대전구장의 마운드에는 16년차의 베테랑 투수 정민철(한화)과 이대진(KIA)이 나란히 등판한다. 팀 승리의 중임을 맡은 두 선수는 1992년 프로야구 입문 동기.
정민철은 지난달 30일 롯데와의 홈 경기에서 4와 3분의 2이닝동안 8피안타 4탈삼진 5실점 하며 우울하게 출발 했다. 이대호에게 시즌 첫 만루홈런까

5일 정민철(한화)·6일 이대진(KIA)
프로 16년차 동기생들 선발 등판
KIA 이종범 타격 상승세 지속 기대

지 허용하며 팀은 8-9로 패배 했다. 마운드의 붕괴로 지난 5경기에서 팀이 전패를 한 만큼 노장 정민철은 필승 각오로 5일 KIA전에 출격한다.
6일에는 이대진이 올 시즌 처음으로 경기에 나선다. 전지훈련 막바지 왼쪽 윙구리 통증으로 고생했던 이대진은 지난달 31일 대전구장에서 있었던 한화 2군과의 경기에서 3이닝 동안 실점없이 컨디션 점검을 끝냈다. 앞선 경기에서 리마-윤석민-서재응-전병두로 이어지는 선발진이 깔끔한 피칭으로 위력을 과시한 만큼 노련미의 이대진까지 6일 좋은 투구를 보인다면 KIA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선발진 구축이 가능하다. 지난 3일 5선발로 나선 젊은피 양현종이 6피안타 2사사구로 3실점 하며 2와 3분의 2이닝 밖에 채우지 못한 터라 이대진의 선발진 합류 여

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두 베테랑 투수의 활약만큼이나 이종범(KIA), 문동환(한화) 두 노장의 행보도 관심 거리다. 지난 2일 시즌 첫 안타로 통산 600타점을 채운 이종범은 3일 경기에서는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선보이며 조범현 감독의 찬사를 받았다. 노장의 몸을 아끼지 않은 투혼에 힘을 얻은 선수단은 타격에 집중력을 보이며 2연승을 기록했다.
팀의 침체에 부상병 문동환의 귀환도 가시화 되고 있다. 장판지 부상으로 재활을 해왔던 문동환은 1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삼성 2군과의 연습 경기에서 5이닝 동안 3피안타 1사사구 1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 팀이 5연패를 하는 동안 한화 마운드는 무려 36실점을 했다. 2패는 1점차로 당한 역전패였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문동환의 1군 합류도 빨라질 예정이다.
분위기 반전 중인 KIA 투타의 이대진과 이종범, 위기의 한화 마운드 중심 정민철과 문동환이 주말 대전구장의 승부를 가르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정민철



내일 맨유 VS 미들즈브러
박지성-이동국
맞대결 이뤄질까

올 시즌 처음 출전한 '꿈의 무대'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호평을 받은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왼쪽)이 상승세를 몰아 정규리그 연속 결장의 사슬을 끊는다.
맨유는 6일 오후 9시30분(이하 한국시간) 영국 미들즈브러의 리버사이드 스타디움에서 이동국(오른쪽)의 미들즈브러와 2007-2008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지난 시즌 챔피언 맨유는 올 시즌 여섯 경기를 남겨놓고 승점 76(24승4무4패)으로 첼시(승점 71)와 아스널(승점 70)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며 리그 2연패와 '더블'(정규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향해 매 경기 전력투구하고 있다.
리그 2연패 가능성은 높다. 이 경우 지난해 아시아 선수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 메달을 목에 걸었던 박지성이 다시 우승 메달을 받기 위해선 남은 6경기 중 3경기 이상을 뛰어야 한다.
박지성은 지난 2일 AS로마(이탈리아)와 2007-2008 유러피언컵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원정 1차전(2-0 승)에서 풀타임을 뛰면서 후반 웨인 루니의 해키골을 돕는 등 인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였다.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은 "그렇게 루니의 골을 만들어 줄지는 생각도 못했다"며 박지성에게 축하를 보냈고, 유럽 언론은 노장 라이언 기스 대신 박지성을 선택한 퍼거슨의 용병술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미들즈브러의 이동국은 2일 선덜랜드와 2군 경기(4-1 승)에서 모처럼 풀타임을 뛰며 득점포까지 가동했지만 박지성과 맞대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의 미션힐스 골프장에서 열린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1라운드 15번 홀에서 김미현이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지애 '힘내라 힘!'

빠른 그린에 '흔들'...1오버 공동 29위
'여제' 오초아 4언더...1타차 선두 추격

LPGA 나비스코챔피언십 1R

보기없이 버디만 다섯 개를 골라낸 카렌 스티플스(잉글랜드)에게 1타차 단독 선두를 내줬지만 작년 브리티시여자오픈에 이어 메이저대회 2연승을 노리는 오초아는 흡족하다는 표정이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도 스티플스가 선두라는 사실보다 오초아가 1타차 2위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초아는 평균 드라이브샷 비거리가 283.5야드에 이르러 웬만한 남자 선수 못지 않은 장타력을 뽐내 동반 플레이를 펼친 작년 우승자 모건 프레스(미국)의 기를 죽였다.

최경주 컷 위기

PGA 셀휴스턴오픈 1R

미야자토 아이(일본)가 오초아와 함께 공동2위에 오른 가운데 '태극자매'들은 힘을 쓰지 못했다. 오초아를 견제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신지애(20·하이마트)는 빠른 그린에 적응하지 못해 버디 2개와 보기 3개를 묶어 1오버와 73타로 공동 29위를 기록했다.
그나마 오초아를 견제할 만한 순위에 이름을 올린 한국 선수는 2언더와 70타를 쳐 공동 6위에 오른 김미현(31·KTF) 뿐이었다. 무릎수술을 받고 아직 재활을 마치지 못한 김미현은 전보다 더 길어진 코스에서 장기간 페어웨이우드샷이 잘 먹히면서 버디를 4개나 뽑아냈다.
정일미(35·기가골프)와 이미나(27·KTF)는 프레스,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폴라 크리머(미국) 등 우승 후보들과 함께 10위(1언더와 71타)그룹에 합류했다.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를 앞두고 셀휴스턴오픈에 나선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컷 탈락 위기에 몰렸다.
최경주는 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 험블의 레드스톤골프장 토너먼트코스(파72·7천457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5개를 묶어 2오버와 74타를 쳐 공동 99위에 그쳤다.
9언더와 63타를 때려 코스레코드를 갈아치우며 공동 선두에 나선 아담 스콧(호주)과 존슨 와그너(미국)에 11타차로 밀린 최경주는 당장 컷 통과가 발등의 불이 됐다.
나란히 1언더와 71타를 적어내며 공동 37위에 오른 동갑내기 양용은(35), 위창수(35·이상 테일러메이드)가 '코리아 브라더스' 가운데 첫날 성적이 가장 좋았다. 박진(31·던롭스릭스)은 최경주와 함께 99위그룹에 머물렀다.

'광속 서버' 앤디 로딕
페더러 꺾고 4강 진출
소니 오픈 테니스 男단식

'광속 서버' 앤디 로딕(26·미국)이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27·스위스)에게 당한 11연패의 사슬을 끊었다.
세계랭킹 6위 로딕은 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크랜든파크에서 열린 테니스 마스터스시리즈 소니 에릭슨오픈 남자단식 8강전 페더러와 경기에서 2-1로 이겨 준결승에 올랐다.
한동안 페더러에 이어 세계 2위를 달렸던 로딕은 페더러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힘을 쓰지 못했다. 상대 전적에서 1승15패로 밀린 것은 물론 2003년 한 번 이긴 뒤로 내리 11번을 지기만 했다.
로딕은 게임스코어 3-3으로 맞선 3세트 자신의 서브 게임에서 0-30까지 밀려 위기를 맞았으나 이후 내리 11포인트를 따내며 니콜라이 피리엔코(4위·러시아)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 페더러는 올해 출전한 4개 대회에서 한 번도 결승에 오르지 못하는 부진에 빠졌다.



5일 (토)
▲2008 LPGA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2R (06 : 00·SBS골프)
▲2008 프로야구 <롯데 : LG>(13 : 45·SBS스포츠), <한화 : 기아>(14 : 00·MBC ESPN), <우리 : 삼성>(13 : 30·KBS N SPORTS)
▲2008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 : 한신>(17 : 45·SBS스포츠)
▲2008 K리그 <부산 : 수원>(19 : 00·MBC ESPN·KBS N SPORTS)
▲07/08 프로농구 PO 준결승 1차전(14 : 50·XSPORTS)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시타 : 첼시>(23 : 00·MBC ESPN)

골프 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별회원권
최저 '특별회원권'비...
문의: 1062351-0095